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자

쇠물폭포여, 승리의 축포가 되라

가슴벅찬 한해가 흘렀다. 병적인 승진포성 높이 울리며 온 나라의 일터가 끓었다. 그 어디서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신장의 피를 펴며 땀을 흘리며 2배, 3배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증산투쟁을 활발히 벌였다. 병적인 보급을 역세로 틀어쥐고 전격의 보복을 크게 내렸던 장엄한 대승에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이후 달마다 주체철생산 장성! 3월 30일현재 1.4분기 주체철생산계획 뺏기개 완수!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00여이나 더 늘어난 새 기록이다. 정신이 번쩍 들고 신심이 넘치는 혁신의 소식이다. 지금도 성장의 용해잠자대에서는 붉은 쇠물이 승리의 불보라가 되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단단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들을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력사적인 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 접하였을 때 성장로동계급의 심장은 그 누구보다 높여졌다. 강철로 우리 당을 총직하게 만들어온 성장의 전통을 이어가자, 다시 한번 성장의 본래를! 새로운 병진로선관철의 기수가 되자, 이런 맹세가 성장방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품은 성장의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5월 17일공장 회전로들이 만부하를 걸고 1, 3강철적장의 전기로들마다 불기둥이 뿜어올랐다. 현장조반들에는 별해 혁신의 소식들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교대당 하루 2차에서 3차지, 4차지대로! 이 나날에 예견치 않았던 정황속에서 한몸을 내어 불맹개소를 퇴치하고 회전로의 슬결을 지키고 용해공, 수리공도 있었다. 전기로의 나이런 조작공으로부터 용해공, 기중기운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용해시간을 1시간, 2시간 단축한 혁신의 기록들도 있었다. 설비보수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밤이 깊도록 용접의 불

보라를 날린 로동자들은 그 열마인가. 길을 걸으면서도 그 누구나 어떻게 하면 1t의 강제라도 더 증산하겠는가에 골몰하였다. 1강철직장 용해공들속에서 원로장들을 총전보다 늘일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 나왔으며 모두가 달라붙어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높여왔다.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장그러 바치며 깨닫힌 로동계급의 량심과 승고한 의의심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이들이다. 6차지의 쇠물만 쏟아내면 1.4분기 주체철생산계획을 돌파하게 되는 며칠전 어느날이었다. 5월 17일공장 주체철직장 1회회전로에서 오후교대를 인계하면서 철나에 46m구간에서 내화벽들이 탈락되는 뜻밖의 정황이 발생하였다. 로가 식자면 적어도 이들은 기다려야 하였다. 허나 이들에게는 분초가 천금같이 귀중하였다. 5월 17일공장 종업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그 시각 이들의 생각은 한표으로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성장의 강철전사들**

이 아닙니까.》 한 축로공의 목소리였다. 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그의 말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결사투쟁을 벌립시다!》** 그리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전이 벌어졌다. 쫓은 가마니를 뒤집어쓰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로속에 뛰어든들인 축로공들의 모습은 불붙은 적의 화구를 물으로 막은 화선의 용사들과 다를바 없었다. 성장의 로동계급은 이런 불굴의 정신력으로 난관을 맞아안고 고사하며 총정의 붉은 쇠물을 쏟아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무기가 될 설비들의 만가동에 스민 성장로동계급의 피땀이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없었다. 지난해말에 들어서면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다음해 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설비들의 대보수, 중보수준 투를 통하여 크게 전개하였다. 회전로며 가열로, 분피압연기 등 속속한 설비들의 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공무부문의 로동계급이 용감 맡아나섰다. 주물직장, 장비직장, 기술준비직장, 공무직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이 격렬한 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공무직장의 로동계급은 보수현장에 매달려 나가 결된 부속용가공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손이 떠먹어붙는 쇠덩이를 붙이고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고 선반을 돌린 한 신의 날들이 흘러 땀방울이 얼어붙는 회전로, 전기로, 분피압연기, 가열로, 충전정수 등 많은 설비들의 보수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 그리하여 성장은 올해에 들어와 생산에서 양상을 일찍이 첫달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주체철 생산을 2.5배로 높여있으며 뜻깊은 2월에는 수백이나 더 증산하고 3월에는 말저지 계획을 12일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수십, 수백의 쇠물을 더 쏟아 쏟아도 성취가 없다는것이 성장로동계급의 목소리였다. 그렇다. 당을 만드는 성장로동계급의 피땀은 성장은 새 기록의 한계를 모른다. 보다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성장은 전진의 보복을 크게 내거었다. 당의 부름이러한 한몸 서슴없이 내내어사라도 기여이 관철하고자하는 성장의 로동계급은 승리를 확인하는 쇠물폭포로 시대의 양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안주뽕프공장에서
안주뽕프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주물, 가공부문의 생산설비들에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부속품들의 구조를 개조하여 뽕프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기술개발력을 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기술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물용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장 자량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선진기술이 도입된 생산설비들이 새로 일떠서 주물용생산의 과학화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지난해 동안에도 공장에서는 각종 뽕프의 중량을

15~20% 줄이면서도 그 성능을 훨씬 개선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공장의 일군들은 각종 뽕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맞게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제품의 생산성과 가공정밀도를 보다 높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발동하여 여러가지 현대화방안들을 완성하였고 그것을 하루빨리 생산설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단위 과학자들이 공장에 달려나와 기술혁신사업을 떠맡아주고있는 속에 주물과 가공부문의 생산설비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공장기술발전과 리선일, 김용호동무와 주물직장의 로동자들은 여러차례의 뽕프터모시 협업을 통하여 그 초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새로운 배공장치와 자동감시체계를 하루빨리 주물용생산공정에 도입하기 위해 힘찬 돌진들을 내어내고있다. 청년공작장에서 이미 있는 가공설비들에 PLC소체계를 받아들여 부속품공정의 정밀도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술준

비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축과 균형관, 날개바퀴를 비롯한 중요부품들의 구조를 개조하여 뽕프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대도 력량이 집중되고 있다. 공장의 기술력량은 뽕프터모의 시험을 거쳐 종전보다 뽕프의 효율을 5%이상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품구조방안을 찾아내었다. 이에 따라 김성철, 리성덕동무를 비롯한 재취기계공업지도국 뽕프설계연구소와 공장기술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짧은 기간에 설비들을 완성하고 불꽃튀는 제작전투에 들어갔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따라 공장의 일군들은 매 단위별투쟁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요강과 그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생산시대중을 기술혁신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지난 2월 또다시 새로운 종의 고성능뽕프를 개발해낸 공장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들이 더욱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거리건설과 5월 1일경기장 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각지의 대고조건설투쟁들에 필요한 각종 뽕프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내주기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본사기자 홍철호**

대고조실천에 결사옹위의 신념이 비낀다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천내리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선관철을 한결같이 펼쳐나 커다란 성과를 거둔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병진로선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디.》** 지난해 당의 병진로선이 제시된 이래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진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이 발표되었을 때였다. 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생산보장과 관련한 전투목표였다. 지배인 권공평, 부기사장 한관용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폐기할 결정을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발달을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혁신적으로 벌리며 행정경제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일군들의 기술적역량이 높아지는 속에 일터마다에서 종전의 기록을 갱신하는 성과가 이룩되

었다. 하지만 초급당비서 김광철동무는 만족할수 없었다. 아직도 새 전투목표에 비하면 아직 시계가 불꽃처럼 번쩍었다. 새 시계 작동에 관한 방도를 모색하던 초급당비서는 어느날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날 그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떨어진 인민군대지휘관들을 만났다. 우리의 행복을 말갓와지 않는 적들이 스키장건설을 악의에 차서 비방하며 비열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하지만 당중앙이 세계앞에 섰로한 시간까지 죽으나사나 보살을 끝내겠다고, 자제만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그날로 세멘트를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몸을 싣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문득 그에게는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 되새겨졌다.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못한 자책이 컸다. 포강한 대고조실천, 바로 여기에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방도가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대고조실천을 통하여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도록 하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속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을 역세로 틀어쥐고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씨뿌리기전투, 전시기요를 부르며 벼모를 튼튼히 길러 모내기 성과를 높이고 시기가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속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씨뿌리기전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에서는 매 해 농공정별 조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 25일 군과 농장일군들은 물론 분초장사초급일군들이 씨뿌리기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약전농장에 모이였다. 농장의 모판들도 돌아보고 씨뿌리기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과 지난 시기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투쟁을 벌려낸 나날들이 떠올랐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입축축반의 정세속에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

을 역세로 틀어쥐고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씨뿌리기전투, 전시기요를 부르며 벼모를 튼튼히 길러 모내기 성과를 높이고 시기가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투쟁을 벌려낸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볼수록 일군들은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정면하는 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일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각각하였다. 하기에 그들은 새로운 결의를 안고 씨뿌리기전투에 펼쳐나섰다. 온 군에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드넓은 열에 맞게 영양상태도, 속도도, 영양양모를 비롯한 앞선 단위 기법들을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받아들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하면서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포전에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을 철도 불려나오고있다. 협의회도 포전에서, 전투조직도 총화도 들끓는 포전에서 하고 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신심에 넘쳐 씨뿌리기를 다그치고

121호림업련합기업소 아래 10여개 작업소들에서

121호림업련합기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기업소아래 사업소들의 10여개의 작업소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일 앞당겨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데 한 명도 자감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림업부문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힘입어 생산량을 늘려야 하며 겨울철에 모든 로력과 설비들을 통나무생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산관마다에서 일어난 혁신적인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와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겨울철에 통나무생산에 기본적으론 끝내 대안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별무장과 토장들에 나가 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실천투쟁속에서 체득한 필승의 진리-자력갱생

원산유리병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망의 사상은 혁명적연사나 때때로다! 실천과 결과에서 드러나입니다. 많은 적개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집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애,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봉화한 사람입니다.》** 지난 2월 12일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산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5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날을 크나큰 긍지를 안고 맞이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유리병생산능력을 크게 확충하고 생산정성화회의 중을 높이 올리였으며 더 좋은 유리제품생산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관철을 위한 이들의 투쟁행로에서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영도를 받드는 공작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깨어난 량심과 의리의 참모습을 본다. **영광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180여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통이 큰 목표가 설정되었다. 유리병생산능력을 4배로 확장! 공장의 힘으로는 어려운 목표였다. 우에 손을 내밀어 다른데서 생산공정을 일식으로 들여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의 길을 택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능력이 큰 생산공정을 건설하자! 이런 신념을 안고 이들은 원래의 공정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 공정을 들어왔던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마치소리를 보란듯이 울려다졌다. 설비원들이 하루에도 수십장의 도면작업으로 낮과 밤을 이어나갔고 오래동안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자동제병기를 살리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통이 크게 일방을 벌려놓았지만 지배인의 마음은 개떡이 없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용해로의 내화벽들을 자체로 만들어 생산정성화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자고 결심했지만 산성화회원도원천을 찾는데는 이틀이 걸렸었다. 육만으로는 실현될수 없는 것이어서 여러 단위의 연구사들을 찾아 집고결은 길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어느날이었다. 지배인은 어느 한 탄광지구에 알루미늄합금이 많은 광석매장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차례 실험과정을 통하여 이 광석으로 질 좋은 산성화회물을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술준비가 본격적으로 진척되고 시험생산도 진행하였다. 성공이었다. 그러나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만족을 부르지 않았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무기를 더욱 틀어쥐고 스

에서 갖가지 유리그릇생산을 힘껏 내밀었지만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백색도를 높이고 그 질을 더 개선하기 위한 기술발전목표가 세워졌다. 지배인, 기사장과 기술과, 4.15기술혁신돌격대, 새 기술도입실의 기술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과제를 맡아나섰다. 그리하여 형식속에 들어있는 철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철분제거장치제작과 그에 필요한 설비설치작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자기 땅의 자연광물을 더욱 유리하게 리용하여 조국의 재부가 되게 하려는 이들의 애국의 정신은 끝내 훌륭한 열매를 맺어 유리그릇의 질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미배를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의 길에는 기수가 있고 선구자가 있다. 지금 공장에선 또 하나의 새로운 공정이 꾸려지고있다. 미정석탈일공정이다. 자연모양의 무늬가 고차화되어있는 대리석을 달리 모양과 크기, 색깔을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는 미정석탈일공정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또 하나의 재부를 창조하려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창조정신은 우리를 가추후면애안아준다. 올해초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건물개건공사를 내밀면서도 규산염기술자를 찾아 발잡까지 잊고 아글라금 애 쓴 공장일군들과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중강추진지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철욱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경제강국건설의 보검

우리 당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세계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화에 대하여 계속 보도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생명과 담화 등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조선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최후승리의 보검》,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것은 정당한 선택》,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을 비난하는 여론을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의외정술적일것이라는니, 정세를 악용해로 몰아가는 행위라는니 뭐니 하는 허튼 날개를 계속 불어내고있다. 그야말로 쾨벤이다.

우리의 병진로선은 그 무슨 전술적인것도 아니며 정세를 악화시키기 위한것도 아니다. 철저히 그것은 강력한 핵억제력에 토대하여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우리 민족주의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종식시켜 민족의 행복을 보장하고 강성병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로선은 정당하며 불가피하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려는 것은 조선된 정세의 필수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유적인 전진정책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도록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야 된단 우리 당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편이여 취하였다. 그러나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려면 우리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다.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전대시책등 때문이었다. 당의 평등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자신단만하게 돌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대한 기세에 걸림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 날뛰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결코 남강도적인 유엔안보보장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더욱 팔기를 부리며서보다 강도는 《제재결의》를 조작해왔다.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리 리츨보》, 《독서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에 조선반반도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국의 강경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나갔다. 전체 인민이 반미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에 놀란 미국은 감히 선봉질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물조르거하여 우리의 핵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체도를 약화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장기화될 것이라는데 보여준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평화적노력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침체한 투쟁의 동반하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요구하였다. 조선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우리 당은 새로운 전략적로선, 병진로선을 내놓게 되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은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강화하고 평화적완성에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로선이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때로부터 흘러온 근 70년간의 력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 기간 세계적전투모에서 행진이 계속되고 여러 지역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았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침략자와 그 본거지들을 지구상 어디에 있던 정밀타격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만과 주권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담배를 던지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억제할수 있는 힘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핵억제력우에 평화도 보장된다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만 담보된다.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비극적사태는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는데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위압에 못이겨 이디미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발한우도 중동지역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제힘을 키

우리를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위압에 못이겨 이디미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발한우도 중동지역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제힘을 키

우리를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위압에 못이겨 이디미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발한우도 중동지역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제힘을 키

우리를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위압에 못이겨 이디미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발한우도 중동지역의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기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게 기대를 걸고 제힘을 키

천인공노할 강패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멸적의 기개 하늘을 찌른다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세계에 더욱 빛내이려는 의지와 일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있는 우리 체육인들은 피괴군부망나니들의 치명적은 악행소식을 듣고 가슴을 질정하지 못하고있다. 어제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위협하는 뼈라를 날려보내며 망명을 부리더니 오늘도 우리 선원들을 램치하여 저들의 더러운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써먹으려 한 이 미친개부리들을 어떻게 징벌해야 속시원하겠는지 모르겠다.

무죄값은 옥체에 뻗쳐오르는 해적소굴 백령도를 비롯한 해적놈들의 소굴들을 모조리 들부실 멸적의 기개가 혼련장들에 차넘치고있다. 동족대결에 미쳐 합무로 날치는 썬벌베같은 놈들을 선군의 무적주력으로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취지이다. 국제적으로 조만강한 선택과

선원들을 인도주의적에서 구제해주고 방조를 제공하며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는데것은 초보적인 레이로 되고있다. 그러나 국제관계도 인도주의도 모르는 남조선군부패자들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있는가. 강제람치, 무자비한 폭행과 《귀순》강요. 이것이 바로 《인연》이니, 《인도주의》라고 떠드는 피괴들의 추악한 진면모이다. 백령도의 피괴군악당놈들이, 똑똑히 들으라. 놈들이 우리 친반군민의 보복타격앞에서 그 더러운 목숨을 건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정진과 옥체를 강철로 다진 우리 체육인들은 가슴후련한 복부의 시각이 오면 주저없이 훈련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흰수격멸의 길에 펼쳐나설것이다. 체육성 국장 김 명 수

참는데도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괴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 기술대학 조급당비서 류 원 섭

한가운데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괴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한가운데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괴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한가운데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괴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한가운데 분수가 있다. 우리 국앞에서 계속 팔기를 부리며 도발을 걸어오는 놈들에게는 사정없이 하나도 없다. 이 추악한 반역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대로 벗어날수가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적악행에 대해 우리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피괴들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만행도 꺼리지 않는 극악한 대결정신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세계

지난 1월 미국잡지 《뉴스 위크》에는 현 집권자의 실례한 한해를 아우하는 글이 실렸다. 《일전대 던진 격인 2013년, 오바마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은 오바마에게 있어서 2013년은 최악의 한해였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지난 한해 동안에 그가 겪었던 불미스러운 사실들을 차례로 꼽아나갔다. 여기에 미국가 안전보장국이 국내외에 대대적 인 도청을 감행한 죄행이 꼽혔다. 발각된 도청행위로 미국이 당한 수직과 모멸감이 얼마나 컸는지 생략되었는가는, 문제는 도청행위와 관련된 이

러저러한 추문이 한두번의 야유나 조소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도청추문사건은 해를 넘기며 끊임없이 잇달고있다. 일방시정국이 휴대용전화로 주고받는 통화문들을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근 2억통 수집하여 정보분석에 리용하고있는 사실, 도이첸탈대부사 등 나라 정계 및 세계의 유력자 320명의 전화내용을 도청한 사실 등이 전하거 공개되었다. 이 모든 사실자료들은 올해 들어와 새롭게 드러났것이다. 얼마전에는 미중앙정보국이 미국의 의원들을 도청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밝혀진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은 《반미로전》의 미명하에 감행된 미국의 고문만행을 조사하는 미국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렌지 계간 도청활동을 벌려왔다고 한다. 미국에는 물론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비단히 목소리까지 울려오고있다. 이번엔 드러난 도청추문사건이 미국에서의 한심한 인권침해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한결같이 혀를 찼고있다. 세상에 미국놈들 《인연호》를 거버내가 나도록 고아들은 나라는 없다. 최근에는 그 무슨 《세계인권보조기구》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의 《인연》에 대해 혼시질하느라 여념이 없

다. 바로 이 《홍몽한 인연호》의 진면모가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헛소리가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도청추문사건이 또 터진것이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통화 내용들을 복음해서 한달동안 보관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된 체를 2011년에 어느 한 나라를 대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며칠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해외의 대규모통신기구 기업인 화위기술유한공사 본사의 봉사기에 침입하여 최고경영책임자 등의 통신을 감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2007년경부터 시작된 작전으로서 이 공사와 중국인해방군의 판계를 내뻐하는것이 목적이였다고 한다. 또한 공사의 제품을 구입한 나라의 컴퓨터와 통신망에 침입하여 오바마가 명령을 내리던 싸이버공격을 가하는것도 가상하고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너털한 도청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듣느니 처음이

라는 식으로 아년보살하고있다. 그야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의 뻔뻔스러움이 극치를 이룬다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가 세계의 전면적에 대해 도청행위를 하지 않았노라고 다짐을 한지 얼마 안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련속 등장하고있으니 미국으로서야 얼마나 진면이 나섰는가. 게다가 도청추문사건의 폭로자인 스노우엔이 한 발언으로 하여 더욱 그렇다. 그는 조만간 미국정부의 정탐모략책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폭로할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미국은 스노우엔의 입을 틀어막지 못해 안달이 나고있다. 미국이 스노우엔을 배신자로 취급하고있노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를 보호해야 할 인물로, 지어는 《영웅》으로까지 떠받들고있다. 이제 또 어떤 파격적인 진실이 세상을 들뜨다놓을지 몰라 미국은 전전공황중이다. 세계는 미국에 물고있다. 미국의 도청추문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미국은 한 말을 찾지 못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지랄발광하는 미국에 있어서 그럴수 있을수 없다. 미국은 지구밖으로 내뿜어치야 할 악의 나라 본사기자 박 속 영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산림황폐화현상

세계적으로 산림황폐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약 230만ha의 산림이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이것은 낡은 자료로 되고있다. 최근 몇달동안에만도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지에서 산불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요인으로 하여 많은 산림이 없어졌다. 지난 2월 28일 프르트르의 중부지역에서는 산불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300ha 이상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많은 경제적손실이 초래되었다. 이 나라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45만ha의 산림이 산불로 황폐화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 19일에는 필리핀의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 50ha의 산림과 초원이 불타버렸다. 보다싶이 산림황폐화가 날을 따라 심해지고있다. 산림이 황폐화되면 인적, 물적피해가 막심하다. 경제적손실은 물론이고 생태환경 또한 무참히 파괴된다. 산림황폐화현상은 지구온난화도 촉진시킨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가 지구온난화에서 벗

어나자면 인류가 많은 부침망을 다스리 산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산림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큰물과 가뭄의 방지, 기후안정 등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히 관계되는 생태보상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현시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그러자면 세계적으로 산림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광적으로 벌어나라 절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절박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산림보호 및 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연 5억 3000만명이 의무적인 나무심기 활동에 참가하여 25억 2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이 609만 2000ha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베이징시에서 나무심기 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시에서는 지난 33년간 연 8200만명씩 의무적인 나무심기 운동에 참가하여 1억 9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은 결과 시의 산림면적이 12.8%

로부터 40%로 늘어났다고 한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래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방적인 수림화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회복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관리하며 목축을 두고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원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세계의 평가 - 악의 근원은 미국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온갖 못된것을 일삼고있어 수많은 나라 사람들속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4%가 미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본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반면에 서방 언론들이 《악의 근원》이라고 평한 나라를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은 응답자비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의 간섭책동 규탄

이란동원군 부사령관이 9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풍부한 원유자원이 매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나라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목표로 되고있다고 까뻐냈다. 원유를 장악하는것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기때문에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정부를 뒤엎고 오 부르조이즘이 권력을 차지하도록 획책하고있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에서 반미시위

필리핀에서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래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방적인 수림화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회복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관리하며 목축을 두고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원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필리핀에서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베네수엘라가 2006년부터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산림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적극 불리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각지 양포장들에서 45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산되었으며 3만 3190ha의 면적에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2005년 산림법이 제정된 이래 케냐에서는 산림보호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전방적인 수림화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가나정부도 최근 나라의 산림 회복 야생동물자원을 적극 보호관리하며 목축을 두고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작성하였다. 부룬디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현실은 산림조성이 결코 단순한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며 인류의 생산존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고있다. 산림을 잘 보호하고 리용할 때에만 그것이 풍부한 자원으로 시 영원히 인간에게 복부할수 있다. 이를 위한 여러 나라들의 활동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